

	성균관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		
회 의 명	제42차 성균관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		
일 시	2023. 6. 30.(금) 16:00	장 소	600주년기념관 3층 제1회의실
참석위원	김은상(의장), 한상만, 전재욱, 박근아, 전미희, 윤영선 평의원 / 서용원, 김중환, 허재강 평의원 위임장 제출 (이상 총 9명) ※ 기획조정처 유필진 처장, 전략기획팀 이새롬 직원 배석		
불참위원	김윤배, 박동희, 조준범 평의원		

1. 개 회

- 김은상 의장이 총 12명의 평의원 중 6명이 참석하고 3명은 위임장을 제출하였음을 확인하고, 제42차 대학평의위원회 개회를 위한 성원이 되었음을 선언하다.
제42차 대학평의위원회 안건이 심의사항 1건임을 확인하고, 전차 회의록을 묵독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.
- 전차 회의에서 한상만 평의원이 질의한 글로벌보험·연금대학원 폐원에 따른 입학 정원 조정 경과에 대해, 이새롬 직원이 2019~2021 3개 학년도에 걸쳐 일반대학원으로 조정되었다고 하다.
- 김은상 의장이 4.5년 학석사통합과정, 3년 석박사통합과정 제도의 시행에 대해 질의하다.
- 한상만 평의원이 3.5년 학사과정 조기졸업과 총장의 승인에 따른 1년 석사과정을 통해 총 4.5년 학석사통합과정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다.
- 김은상 의장이 추가적인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, 전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다.

2.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(안)

- 김은상 의장이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사항을 상정하고,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.
- 이새롬 직원이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(안) 회의자료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고, 김은상 의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.
- 윤영선 평의원이 모집단위와 대학/학과단위의 차이 및 학석사통합과정의 개념에 대해 질의하다.
- 유필진 기획조정처장이 모집단위는 신입생 선발에 활용되는 단위이고, 대학/학과단위는 실제 소속되는 단위라고 하다. 학석사통합과정은 입시 당시부터 학사 및 석사학위 통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위과정이며, 학생의 선택에 따라 학사학위만 취득할 수도 있다고 하다.
- 윤영선 평의원이 계약학과인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의 교원 채용, 재정 지원 등에

대해 질의하다.

- 유필진 기획조정처장이 해당 학과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적 인프라로서 적임 교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다.
- 운영선 평의원이 우수 교원의 채용은 물론, 최우수 교원 및 석학이 단기간이라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치하기 위해 계약학과 협약 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재정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다.
- 유필진 기획조정처장이 대학 차원에서 노벨상 수상자 등 우수 석학을 유치하여 단기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다.
- 한상만 평의원이 협약 기관의 박사급 연구인력을 본교 학연교수 등으로 유치하여 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제안하다.
- 유필진 기획조정처장이 계약학과 운영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충분히 제도적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하다.
- 한상만 평의원이 융합과학계열 소속 학생은 1학년 때 학부대학 소속인지, 동일 계열 내 학생간 융합가능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지 질의하다.
- 유필진 기획조정처장이 해당 계열 소속 학생은 1학년 때부터 학부대학이 아닌 해당 학과 소속이며, 소속학과 수업은 물론 타학과 수업 등 융합가능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고 하다.
- 한상만 평의원이 응용AI융합계열의 양 캠퍼스 병기 및 수여학위명에 대해 질의하다.
- 유필진 기획조정처장이 응용AI융합학부는 재직자전형 학과로서 인사캠/자과캠으로 모두 전공 진입이 가능하기에 양 캠퍼스에 병기되어 있으며, AI융합운영전공 및 산업인공지능전공에서 응용AI융합학사를 수여한다고 하다.
- 전미희 평의원이 응용AI융합학부가 입학 후 전공이 어떻게 분리되는지, 재직하면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는지 질의하다.
- 유필진 기획조정처장이 입학 후 경영학 기반 AI융합운영전공과 시스템경영공학 기반 산업인공지능전공으로 분리되며, 재직자전형 학과의 특성에 따라 재학중 재직의무가 부과된다고 하다.
- 운영선 평의원이 별도정원으로 표기된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의 연간 입학규모에 대해 질의하다.
- 유필진 기획조정처장이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 학석사통합과정의 연간 입학규모는 50명이라고 하다.
- 운영선 평의원이 학생 증가에 따른 교원 증가에 대해 질의하다.
- 유필진 기획조정처장이 정원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교원 채용과 더불어 신설되는 별도정원 학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교원의 양적, 질적으로 팽창할 것이라고 하다.
- 한상만 평의원이 의무전문석사학위를 M.D.로 표기하는 부분에 질의하다.
- 김은상 의장이 M.D. 표기는 학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Medicinae Doctor의 약자로서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다.

- 전미희 평의원이 신설된 반도체융합공학과와 기존의 반도체시스템공학과가 유사하지 않은지 질의하다.
- 유필진 기획조정처장이 해당 학과가 일부 중복된다는 우려가 있으나, 반도체시스템공학과는 최상위권 계약학과로서 반도체계열로 선발하며, 졸업 후 취업과 연계되고, 이에 따른 실습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다.
반면, 반도체융합공학과는 일반학과로서 반도체계열이 아닌 융합과학계열로 선발하며, 입학정원 및 재정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하여 향후 반도체 분야에 대한 대단위 투자 및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다.
- 전미희 평의원이 관련 분야의 교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할 계획인지 질의하다.
- 유필진 기획조정처장이 정원이 상당히 증원된 상황이기때문에 반도체 분야의 교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다.
- 김은상 의장이 반도체융합공학과와 융합 성격을 고려하여 성균융합원으로 편제되어야 하지 않는지 질의하다.
- 유필진 기획조정처장이 학과 특성 및 교육과정 참여 교원을 고려하여 해당 대학으로 편제되었다고 하다.
- 전재욱 평의원이 응용AI융합계열의 경우 새롭게 시도하는 재직자전형 학과로서,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다.
- 유필진 기획조정처장이 재직자전형 학과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교원의 참여, 별도 정책지원 방안을 시행하는 등 학과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다.
- 운영선 평의원이 삼성과의 우수한 계약학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으로 확장하여 향후 연구, 기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다.
- 유필진 기획조정처장이 대학원에서 SK, LG 등과의 계약학과를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며, 향후 다양한 기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다.
- 김은상 의장이 추가적인 의견이 없는지 묻고,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참석 평의원 전체의 동의 하에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(안)을 원안대로 가결하다.

3. 기타사항

- 운영선 평의원이 외국국적 학생의 학생 규모, 국가별 비중 및 학생이 교육과정을 적정히 이수하여 우수한 학생으로 성장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지 질의하다.
- 유필진 기획조정처장이 약 4,000여 명에 이르고 대부분이 중국국적 학생이며, 한국어능력이나 학업성취도가 뛰어나지는 않으나, 본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입학하여 졸업하고 있다고 하다. 다만 대부분의 외국국적 학생이 학위 취득 후 귀국하여 경력경로의 추적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다.
- 운영선 평의원이 성균관 대학의 역사성을 가지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고 하다.
- 김은상 의장이 추가 질문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, 17:40에 폐회를 선언하다.

붙임 제4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1부. 끝.

서용원

<위임>

한상만



전재욱



김윤배

(인)

김은상



박동희

(인)

김중환

<위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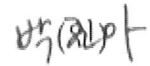
허재강

<위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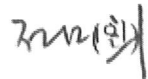
조준범

(인)

박근아



전미희



윤영선

